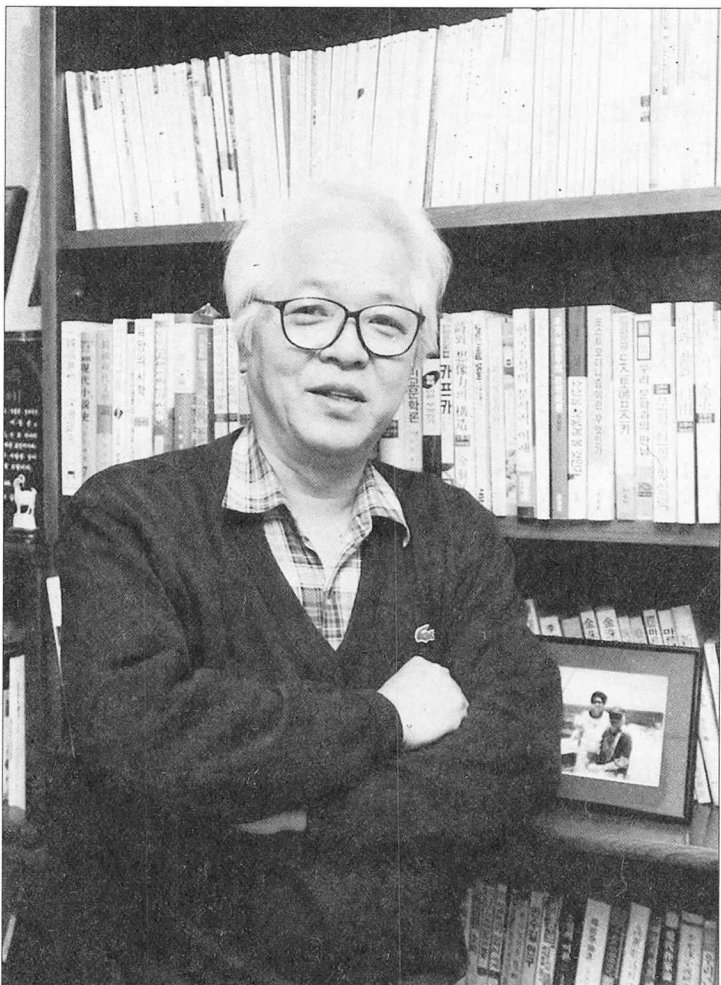


신명나게 풀어보는 ‘우리의 소리’

‘테마가 있는 판소리 소설’ 시리즈 펴내는 이청준씨



이청준씨.

소설가 이청준씨(58)가 ‘테마가 있는 판소리 소설’ 시리즈를 펴냈다. 흥부가·수궁가·심청가·춘향가·적벽가 등 다섯마당의 판소리를 소설화하는 작업인데, 1차분으로 《놀부는 선생이 많다》와 《토끼야, 용궁에 벼슬가자》(이상 열림원)를 내놓았다.

18세기에 판소리사설이 정립되고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이래, 판소리는 ‘골계의 미학’을 통해 한국소설문학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해왔다. 신소설 작가들에 의한 패러디가 대표적인 예. 채만식에 이르러 판소리적 기법이 소설에 채용돼 만개하지만, 이후로는 이런 전통이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형편이다.

인간성 탐구 등을 테마로 내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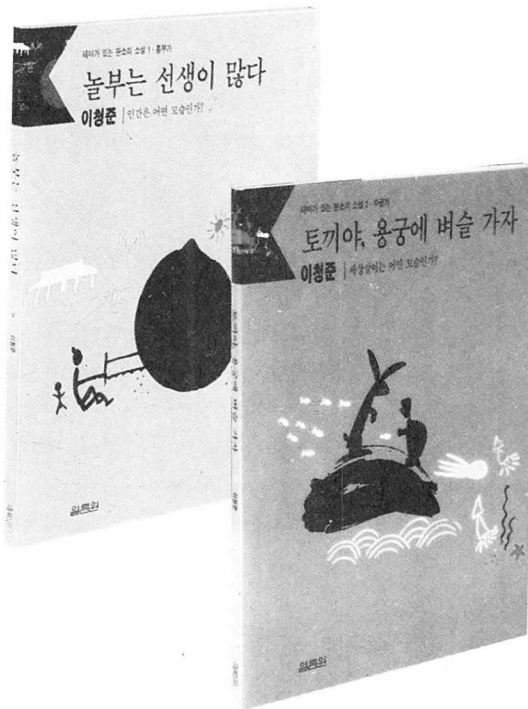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이청준의 판소리 소설은 반갑기 그지없지만, 한편으로 의외의 일이다. 물론 그가 《서편제》를 비롯한 ‘남도연작’을 통해 판소리나 서도민요에 대해 보여준 강

한 애착을 유의하더라도, 이청준이 70년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작가라는 사실이 아직도 희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집필 동기를 들으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판소리가 좋아서입니다. 판소리 사설과 남도 잡가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아주 친숙하지요. 다음은 삶의 지혜와 재미를 배우고 있는 판소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끝으로 최근 동화에 관심이 많은데, 전래동화의 한정된 소재를 확장하려는 측면입니다.”

이청준 판소리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테마가 있다는 것. 세상사의 이치와 사람의 심성에 대한 묘묘한 비밀을 담고 있는 판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택한 방편이다. 《놀부는 선생이 많다》의 테마는 인간성 탐구.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 아래 놀부를 통한 자기정화를

“우선 판소리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 사설과 남도 잡가를 들으며 자랐으니 친숙하지요. 삶의 지혜와 재미가 가득한 판소리를 요즘 아이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근 동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전래동화의 소재를 확장해 보자는 뜻도 담았습니다.”



시도했다. 곧 갖은 행악을 일삼는 놀부는 반면교사(反面教師)인 셈이다.

《토끼야, 용궁에 벼슬가자》에서는 수궁가를 토대로 세상살이의 일단을 파악한다. “서로 다루고 빼앗고, 힘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억누르고, 힘없는 놈은 힘있는 놈에게 아침을 하며 살아야 하고… 거짓말 잘하고 잘난 체하는 놈, 저 살자고 남을 헐뜯고 고자 질하며 못살게 하는 놈, 교활하고 알미운 놈, 엉큼하고 비겁한 놈. 그런 무리들이 득실거리기는 수중국이나 물세상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다.”

민족 고유의 정서에 관심 많아

앞으로 나올 심청가와 적벽가를 토대로 한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대비를 통해 세상의 구성요소를 드러낼 예정. 효의 전범으로 인식돼온 심청가에서는 심봉사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평범한 사람인 심학규, 도덕적 인간 심청, 그리고 부처·용왕·옥황상제로 표상되는 초인간적 힘이 대비된다. 중국이야기인 탓에 옹고집전으로 바꿀까도 생각했던 적벽가에서는 조조·도원결의 삼형제·공명을 피·지혜·섭리의 대변자로 이끌 생각이 다. 어린이를 위한 판소리이야기 성격이 강한 이번 시리즈에서 춘향가는 가장 까다로운 대목. 사랑과 절개의 진면목을 우정과 신의로 풀어낼 것이다.

이청준 특유의 화법과 문체의식을 기대한

독자는 얼마간 실망할 정도로 테마 설정을 통한 새로운 해석을 빼고는 본래 줄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인의 유산을 잘 못 건드리면 커다란 실례가 된다는 작가의 책임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판소리 창자에 따라 사설의 내용이 다르고 편차가 있는 판본이 여러개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소설)의 특성상, 공통되는 내용을 추려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청준씨는 1965년 《사상계》에 〈퇴원〉을 발표하는 것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십여편의 장편소설과 160여편의 중·단편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 탐구와 사회구조의 분석을 병행해왔다. 최근에는 판소리를 비롯한 민족 고유의 정서와 유산에 관심이 많다. 작가도 자기연배에 어울리는 작품세계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청준씨는 젊은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이 많다.

“젊은 작가들은 삶에 관한 정보의 생산보다는 정보의 유통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첨단매체와 대량매체에 채어 쫓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풍자와 웃음을 잃지 않는 작가정신이 요구된다고 덧붙인다. 더구나 민족통합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문학의 공간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 최성일 기자